

미세먼지저감 시행 만전

무주군, 분야별 매뉴얼 마련 기관 및 주민 동참 유도 등 점검 강화

무주군이 미세먼지로부터 청정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행정청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 주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참여를 우선 독려하고 생활공간 주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과 주차장,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이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외 농경지와 공터 등지에서의 불법소각을 막는 한편, 차량운행이 많

은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와 도로노면청소차를 이용한 청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성화 환경정책 팀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은 무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저감 노력에 주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생활 속 작은 노력들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 맑은 공기 모범도시 무주의 명성과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건강이 모두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는 지난해 무주를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했던 대기오염 측정소가 정상 가동 중으로 이곳에

서는 풍향과 풍속, 기온 등 기상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6개 항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측정결과는 무주군청 군청 앞 구) 관광안내소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람 신호등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으며, 환경부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전북도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을 하면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폐수배출시설 악취제거와 시설개선사업에도 매진할 예정이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알람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봄철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특별단속

진안군,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등... 오는 5월 31일까지

진안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불법 매립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다.

군은 앞서 홍보전단지 배포와 홍보물 게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안군은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위반 시 전당 5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 등 쓰레기 3NO운동 위반자 14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요 공터에서 미관을 해치고 있던 각종 생활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정 진안의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신념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여 청정진안 만들



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5일간 의정활동 돌입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의 제안 설명과 201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을 처리했다. 같은 날 운영행정

위원회(위원장 이우규)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준열)에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12일과 13일 양일간에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옥주)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준열 의원은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신갑수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회기가 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강조하고 "해방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천천면 광산마을이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살구나무, 황벽나무 등 360주를 식재해 마을경관을 조성한다.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공모사업 장수군 천천면 광산마을 선정

1억6000만원 확보, 소득창출·농산촌경관재현기대

장수군 천천면 광산마을이 전북도의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 다시 찾고 싶은 농산촌 마을 경관을 조성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북도 산악농정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공모사업'은 '꽃과 열매가 어우러진 찾고 살고 싶은 농산촌 만들기' 목적의 공모사업으로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살구나무, 황벽나무, 이팝나무 등 수목 360주를 식재해 마을경관을 조성한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광산마을은 지난 2007년 산촌생태마

을로 지정된데 이어 2016년 체험휴양마을 지정, 2017년 생생마을 사후관리마을로 지정되는 등 주민 소득증대와 산림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이다. 고현정 시장은 "살구나무 열매와 씨를 활용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꽃피고 향기나는 마을경관 조성으로 산촌생태마을을 더욱 활력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20년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마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 아리

장수군보건의료원-전북대병원 노인성질환 만성어지럼증 검사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과 전북대병원 노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지역자원 연계 사업 일환으로 노인성질환중 하나인 만성어지럼증 관련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밀검사에서는 전년도 및 2017년도 만성어지럼증 검진자 중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7부터 오는 4월 11까지 매주 1회씩 6주간 집합 진행여부를 위한 재검진을 위해 의료원이 대상자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해 검진이 진행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검진으로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하고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을 병행하고 하반기 말초신경질환 검진도 계획하고 있어 장수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진안군은 11일 산림청 주관으로 이장,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백운면사무소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운영 방향과 기본구상안 등을 안내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리산, 덕유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한방특화형 산림치유 시설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에 617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 827억원(국비 682억, 지방비 165억)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산물 유통, 지역관광,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을 산림치유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전국 시군 4H연합회 회장단 워크숍 개최

전국 시군 4H연합회 회장단 워크숍이 12일까지 1박 2일 간 무주군 설천면 나뭇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4H조직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 4H본부 고문삼 회장과 한국 4H중앙연합회 강민석 회장을 비롯한 각 시군 4H연합회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워크숍 첫날인 11일 참석자들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을 공유하고 각 시군 4H연합회 발전방안과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2일에는 4H회의법과 PPT제작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인홍 무주군수는 "명석한 머리, 충성스

러운 마음, 부지런한 손, 건강한 몸으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체가 바로 4H고 여러분"이라며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의지를 북돋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돼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도 친환경농업 실천과 소득농업 실현에 힘쓰며 농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4H중앙연합회(회장 강민석)는 자조협동적 사업 추진과 4H운동 전개를 위해 1981년 출범한 학습단체로 현재 9개 도, 8개 특·광역시, 157개 시·군에 7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